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시민기록단 ‘미추홀의 음식’ 기록				
구술자명	박정희	면담자	김용경		
면담장소	언니네 순대국	면담지원	정은주		
면담 일시	2021년 9월 13일	회차	1	시간	34분 56초
자료번호	Michuho1CA-07-00000875				
구술 개요	실내 포장마차를 시작으로 친구의 가게를 인수받아 순댓국 장사를 시작, 육수는 부산에서 오는 사골 뼈로 우려냄, 코로나로 인해 포장하는 사람이 늘어남, 운영할 때 재료를 제일 중요시 여김				
주요 색인어	순댓국, 시장, 신기촌 시장, 음식, 순대 골목, 포장마차, 순대, 식재료, 골목, 냄새, 물가, 육수, 사골, 부산, 깍두기, 갯김치, 양념, 곱창, 조미료, 술, 포장, 코로나, 용기, 비닐, 전통시장, 소독, 재료, 종업원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파일명	
1. 순댓국 장사를 시작하게 된 배경			00:00:00~ 00:04:30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기록검수확인서 ▷ 녹취문	
- 순댓국 장사를 시작한 지 20년째 - 체물포 앞 역에서 실내 포장마차를 하다 친구가 2년 동안 순댓국 장사한 가게를 인수받음					
2. 식재료			00:04:31~ 00:13:13		
- 순대는 십정동에서 옴 - 재료 값이 올라 어려운 점이 있음 - 육수는 정육점을 하는 부산 사람이 사골을 대주고 있음. 사골 뼈를 같이 삶아서 육수가 진함 - 깍두기를 직접 담아서 씀					
3. 손님			00:13:14~ 00:24:26		
- 순대가 부족한 날에는 다른 순대를 가져다 쓰는데 손님들이 먼저 알아보는 경우가 있음 - 요새 손님은 오전에 많이 오고 대부분 포장을 함 - 옛날엔 술 손님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음					
4. 코로나로 인한 포장			00:24:27~ 00:28:15		
- 코로나 때문에 포장을 많이 함 - 용기에 포장하면 양이 적다고 느껴 비닐에 포장을 함					
5. 마무리			00:28:16~ 00:34:56		
- 코로나로 인해 소독을 해야해 소요되는 시간이 많음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재료를 가장 중요시 생각함- 옛날 종업원을 쓴 후 경험한 나쁜 기억으로 사장님 혼자 운영 중 | | |
|---|--|--|